**믿음은 쇼가 아니라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5-7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시험이라는 두 중요한 준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삶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그 시험에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40일을 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늘 나의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힘에 대한 유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힘에 대한 유혹에 굴복하곤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완전한 무력함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는 바로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당시 유대인들이 동경해 마지않던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대도시로 몰려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은 더더욱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우러러보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마귀의 저의가 무엇일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리시오”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의 말씀 하나를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와,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다니요! 더구나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이어 천사의 보호로 무사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그를 환호하며 따를 것이라고 마귀는 달콤하게 제안합니다. 예, 마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마귀가 제안한 이 방법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래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맛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위협하며 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출17:2).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듯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험하며 산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마귀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마귀의 제안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해보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무언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화려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해보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결국 나를 드러내려는 일입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닌가? 또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할 것이 아닌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주 사역무대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 삼으려 할 때마다 그분은 홀연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때가 되어 마침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화려한 쇼를 연출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손쉽게 드러내는 대신, 그분은 십자가 높은 곳에 달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런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모호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예수 자신을 향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마디 말로 그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믿음과 인내의 길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국 영광의 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 들어올리신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네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자리에 서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에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 세상에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 말입니다.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간증을 교회에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간증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증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은 이처럼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고, 또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또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화려하고 탁월하게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은 착각임이 분명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많고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도 오해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늘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결과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의 쇼는 끝나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가기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어지러운 쇼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사랑 안에서 푯대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인용했던 이 말씀은 사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라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마28:18-20).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쇼가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믿음의 쇼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교우들 각각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